송년 기획 |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가 뽑았다…올해의 배우는?

“1년 2100만 관객…‘3色 매력’ 주지훈, 최고였다”

〈신과함께2·공작·암수살인〉

해마다 100편이 넘는 영화가 만들어져 관객을 만난다. ‘대박 흥행’부터 ‘폭망’하는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토리가 관객의 선택을 받는다. 그러기까지 대중의 시선을 모으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펼쳐지지만, 그 가운데서 홍보마케터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 역시 수없다. 이들은 영화 기획부터 개봉 이후까지 대중의 감성과 취향을 겨냥하는 홍보마케팅 전략과 전술을 펼친다. 흥행 전선의 최전방에서 고통스럽지만 오로지 관객만을 바라보는 이들은, 이들의 선택은, 현재 한국영화의 중요하고 또렷한 흐름성을 파악하게 하는 또 다른 시선을 제공한다. 스포츠동아가 영화전문 홍보마케터 단체인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와 함께 그 시선을 따라가며 올해 한국영화를 되돌아본다.

영화 홍보마케터들은 ‘올해의 배우’로 주지훈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3편의 주연영화를 내놓으면서도 매번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다채로운 연기 스펙트럼을 갖췄다는 평가가 따랐다. 스포츠동아DB

설문내용

1 올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배우는?
2 올해 최고의 한국영화는?
3 올해 가장 뛰어난 홍보마케팅 전략을 펼친 영화는?
4 2019년 한국영화 유망주는?

●**설문대상**: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소속 홍보마케터
●**설문기간**: 2018년 12월17일~26일
●**참여인원**: 23개사 114명
●**대상작품**: 2018년 1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개봉한 한국영화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는?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Korean Film Marketers Association·KFMA)는 영화 전문 마케팅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영화 홍보마케팅 산업 종사자들의 인권 및 권리를 보호하고 업무 현실을 개선하며 영화계와 더불어 마케팅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 출범했다. 현재 23개사 약 120명의 영화 전문 홍보마케터들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영화사 하늘 김광현 대표가 회장으로 일하며 부회장인 호호호비치 이채현·머리꽃 이인성 대표와 함께 3기 협회를 이끌고 있다.

●KFMA 회원사(가나다순)
▲국외자들 ▲더홀릭컴퍼니 ▲딜라이트 ▲로스크 ▲렌엔터테인먼트 ▲머리꽃 ▲목요일 아침 ▲무비앤아이 ▲스콘 ▲언니네홍보사 ▲엔드크레딧 ▲영화인 ▲영화사 하늘 ▲올댓시네마 ▲이가영화사 ▲이노기획 ▲워너비펀 ▲콘텐츠다봄 ▲퍼스트룩 ▲플래닛 ▲호호호비치 ▲홀리가든 ▲흥미진진

영화마케팅사협회 KFMA KOREAN FILM MARKETERS ASSOCIATION

2018 올해의 배우

배우	주요 작품 / 선정 이유	득표수
주지훈	신과함께:인과 연, 공작, 암수살인 올해의 다작왕.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기. 확실한 도약	38
한지민	미쓰백 스크린에서 드디어 보여준 연기내공. 외모보다 연기가 먼저 떠오르는 배우. 기존 이미지와 전혀 다른 열연	21
이성민	공작, 목격자, 바람 바람 바람 연기 끝판왕 배우로 거듭. 원톱도 투톱도 다 되는 배우. 출연작으로 손익분기점 돌파	15
김혜수	국가부도의 날 역시 갓 혜수. 김혜수의 대표 캐릭터 구축	7
조우진	창궐, 국가부도의 날, 마약왕 강렬한 조연으로 인상적인 이미지. 빈틈없는 완벽한 열연	5

▶‘주지훈’ 올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배우

저승차사·엘리트 군인·연쇄살인마 다른 장르 다른 캐릭터로 매력 발산
홍보마케터 총 114명 중 38명 지지
“다작하면서도 매작품 탄탄한 연기”

대세의 기운이 주지훈에 쏠렸다. 올해 내놓은 주연영화가 3편이나 된다는 사실 때문은 아니다. 이들 영화를 통해 불러 모은 누적 관객이 2100만명을 넘었기 때문만도 아니다. 전혀 다른 장르에서 전혀 다른 캐릭터를 그만의 재능으로 완성한 실력을 인정하고 평가하는 여론이 두텁다.

영화 홍보마케터들의 선택도 주지훈으로 향했다. ‘올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배우’로 주지훈을 지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견을 갖기 어려운 결과이자, 예견된 1위다. 설문에 참여한 114명의 영화 홍보마케터 가운데 38명이 주지훈을 꼽았다. 압도적인 득표다.

설문 결과가 말해주듯 올해 주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자신의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배우가 이룰 수 있는 성취를 증명해 보였다. 이를 통해 한국영화를 든든히 이끌어갈 ‘믿음 가는 배우’로도 자리매김했다. 무엇보다 여러 작품에 출연하면서도 매번 다른 개성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구축, 새로운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달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주지훈의 성과는 ‘기록’으로 살펴보면 더욱 확연하다. 올해 8월 ‘신과함께-인과 연’과 ‘공작’을 일주일 차이로 선보이면서도 각각 1227만, 497만 관객을 이끌었다. 10월에 내놓은 또 다른 주연영화 ‘암수살인’(378만)에서 그 저력은 더욱 뚜렷해 보인다.

주지훈의 활약과 저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확인한 홍보마케터들은 이를 두고 “바람직한 다작의 아이콘”이라고 평했다. 그를 올해의 배우로 꼽은 대다수 마케터들은 “다작을 하면서도 매번 다른 연기”, “다양한 작품 안에서 뛰어난 장악력”, “다작과 흥행을 전부 이룬 드문 사례”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주지훈은 올해 다양한 인물로 자신의 삶을 채웠다. 허풍스러우면서도 왠지 믿음직스러운 저승차사(신과함께), 북한의 엘리트 군인(공작), 연쇄살인마(암수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화에 참여하면서도 때마다 색다른 이야기와 인물로 관객의 감성을 파고들었다.

한 홍보마케터는 “다작을 하면서도 매 작품에서 전혀 거슬리지 않는, 대단한 연기력의 합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주지훈을 뽑은 또 다른 홍보마케터 역시 “‘신과함께’에서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작’과 ‘암수살인’ 속 모습까지 각기 달라 의외였다”며 “왜 그동안 그를 못 알아봤나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다”고 밝혔다.

영화 홍보마케터들이 직접 선정한 ‘올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배우’ 선정 소식에 주지훈은 “더욱 의미가 큰 결과”라고 인사를 전했다. 주지훈은 27일 오후 스포츠동아에 “감독, 배우, 스태프가 촬영현장에서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영화가 극장에 걸릴 때까지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영화 홍보마케터들이 직접 뽑아 주셨다니,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호평과 성과를 동시에 거둔 2018년은 자신에게도 “잊지 못할 해”라고 했다. 그는 “배우로서 축복받은 해”라며 “세 편의 영화로 관객과 자주 만났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영화를 알리기 위한 자리에서 가까이 만난 관객들이 저에게 보내온 응원의 목소리와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돌이켰다.

2019년에도 주지훈은 더 멀리 내달린다.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작품이라면 망설이지 않겠다는 각오다. 먼저 내년 1월25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을 통해 전 세계 190개국 시청자 앞에 나선다. 주지훈은 “어떤 반향이 생길지 배우로서도 무척 궁금하다”고 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지만 주지훈은 지금 MBC 드라마 ‘아이템’ 촬영에 한창이다. 소감을 전해온 27일 새벽까지도 드라마를 촬영에 몰두하면서 시간을 쪼개 쓰고 있다. “오랜만의 드라마 출연이라 걱정도 되고 한편으론 설레기도 한다”는 그는 “현재에 충실하고, 앞으로도 대중과 어떻게 호흡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스포츠동아 독자를 향한 신년 인사도 잊지 않았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한지민 2위·김혜수 4위…한국영화 ‘여성시대’

각각 ‘미쓰백’ ‘국가부도의날’ 활약
‘공작’서 존재감 드러낸 이성민 3위

‘여성의, 여성에 의한’ 무대.

2018년 한국영화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여성’이다. 지난해 할리우드발 ‘#미투’ 운동의 물결이 와 닿은 올해 한국영화계는 성폭력 추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영화 제작현장의 성 평등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올해 ‘한국영화 그리고 여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올해 한국영화에서는 어느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여성’ 배우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덕분이다.

영화 홍보마케터들의 선택 역시 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38표를 얻은 주지훈의 뒤를 ‘미쓰백’의 한지민과 ‘국가부도의 날’의 김혜수가 잇고 있다.

한지민은 이미 청룡상과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의 여우주연 자리에 우뚝 선 것으로 올해 성과를 인정받았다. 쉽게 찾아보기 힘든 캐릭터를 ‘미쓰백’을 통해 생생하게 구현해낸 그는 “성취를 통한 배우로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오랫동안 감춰둔 저력을 과시했다. 홍보마케터들은 “변신”의 진정한 모범을 그에게서 찾으며 “향후 행보”에 대해 호기심을 드러냈다.

김혜수는 1997년 IMF 경제위기의 절박함 속에서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는 인물로서 자신의 “대표 캐릭터”를 갖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영화계 또 한 명의 상징적 여성배우로서 무게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읽게 했다.

두 사람과 함께 ‘신과함께’ 시리즈의 김향기, ‘마녀’ 김다미, ‘리틀 포레스트’의 김태리, ‘허스토리’ 주연 김희애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모두 14명의 배우가 5위권을 향해 경쟁한 이번 설문에서 이들 여성배우들의 면면은 더욱 빛난다.

영화 ‘공작’의 주연으로 다양한 수상의 성과를 안은 이성민 역시 빛난 해였다. ‘공작’과 함께 ‘바람 바람 바람’ ‘목격자’ 등을 통해 오랜 경험과 뛰어난 실력으로 “폭넓은 스펙트럼”을 입증했다. 그래서 “대체불가한 배우”의 “존재감”으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